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1) - 「인촌 김성수와 고하 송진우」

지난 5월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133주년 및 서거78주기추모식'에 참석했다. 고하의 추모식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추모 열기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날 행사의 백미는 철학자 윤평중 교수가 「세계 대세와 한국의 장래 - 21세기에 본 고하 송진우」 라는 제목으로 행한 추모 강연이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추모식'에서 강연하는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그것은 윤평중이 위당 정인보의 말을 인용하여 “고하의 통찰은 ‘세계의 전도를 논한 것이 20년을 지나서도 맞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적확합니다”라고 소개했듯이,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사상가로 첫 손에 꼽을 고하의 탁월한 정치적 식견을 오늘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재조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한국 역사에서 드물게 공심으로 일관한 것이었습니다. 고하 송진우는 단연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평가함으로써, 건국을 보지 못한 채 비명횡사한 고하의 안타까운 죽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활시키는 반전을 보여주었다. 이어 “김구·이승만·김규식·여운형·조봉암·김성수·송진우와 같은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보면, 조국을 되찾고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한 분들입니다.”고 언급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의 청중은 이 같은 윤평중의 평가에 공감했다.

오늘날 진영대결에 매몰된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승만과 김구의 ‘국부(國父) 논쟁’에서 탈피하여, 미국처럼 ‘건국의 아버지들’을 선정한 후 그들의 다양한 삶과 사상을 배우도록 교육하자는 나의 지론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그 감동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윤평중은 김구·이승만·김규식·여운형·조봉암·김성수·송진우 등 7인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제안함으로써, 필자의 견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국의 아버지들’로써 구체적인 대상을 처음으로 공론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윤평중의 강연은 필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었다. 졸저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주장한 필자는 3.1운동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송진우의 공적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 존경 받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형석, 《끝나야 할 역사전쟁》(등문선, 2022)

그래서 틈나는 대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고하와 관련한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제까지 지나쳤던 1930년대 잡지와 신문에 게재된 글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사료를 적잖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고하에 대한 연구는 동아일보에서 발간한 《고하송진우선생전》(1965), 《독립에의 집념 - 고하 송진우 전기》 두 권의 전기류가 바탕이 되었다. 두 책의 공통점은 인촌을 동아일보 '창시자'로, 고하를 '공로자'로 평가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로 인해 역사학계에서는 고하의 삶과 민족운동을 인촌의 아류(亞流)로 폄훼한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인촌과 고하의 관계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관중과 포숙아의 관포지교(管鮑之交)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을 연상시킬 만큼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세상에는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한 가지 사례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두 사람을 가까이서 겪은 춘원 이광수는 <동광>에 기고한 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김성수가 우의를 중히 여기어 한번 (마음을) 허락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현대 조선에서 희한한 사례이다. 김성수와 송진우의 관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이 두 사람은 상투를 자르고 일본으로 나타날 때부터 지금까지 20여년에 걸쳐 그 우의와 신의가 변함이 없다. 김성수도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요, 송진우는 그보다 한층 더 자아가 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때로 논쟁이 생기고 뇌성벽력이 치는 듯한 대충돌이 생긴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우정과 신의는 한 번도 흔들린 일이 없다. 이 점은 송진우의 장점도 된다.(현대어로 고침)-이광수, "김성수론" <동광> 제25호(1931.9), p.8



<동광>25호(1931년 9월호) 표지와 그 속에 수록된 "김성수론"

이것은 비단 이광수만의 생각이 아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조선일보, 시대일보에서 사회부장을 수 차례 역임하고, 당시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던 유광열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세인(世人) 중에는 (송진우)씨를 평하여 '김성수의 병정(兵丁)'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병정이라면 그런 병정이 없을 것이다. 조석(朝夕)으로 김씨 집에 출입하며 씨가 관계하는 대소사를 보고 상의하느니만큼 진실로 충성스런 병정이다. 그러나 부자(富者)의 병정으로 대개는 그 부자를 끌고 기생집에 가고 요정에 가는 것이 상례(常例)인데, 씨는 김씨 상투를 잘라서 일본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병정이요, 중앙학교를 하게 하고, (경성)방직회사를 하게 하고, 동아일보사를 하게하는 그런 병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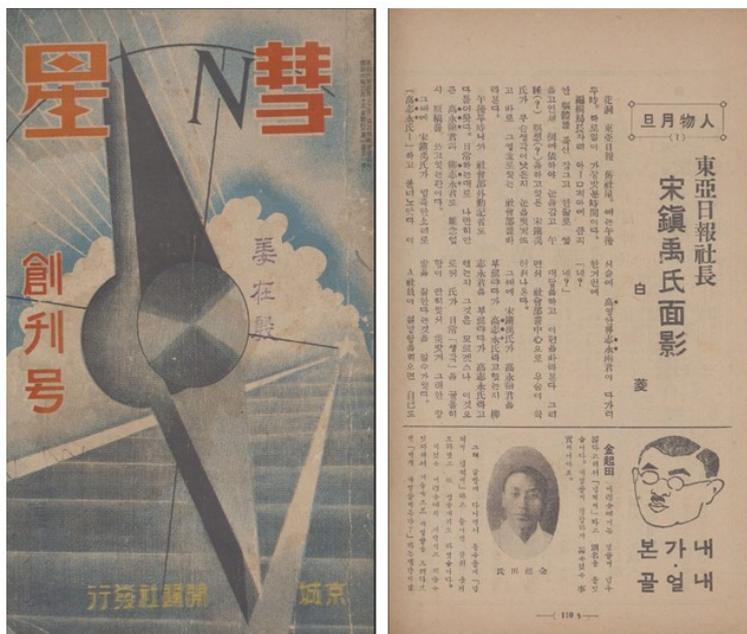
연전(年前)에 김씨와 송씨가 쟁론하는 일(一) 장면에서 송씨는 “오. 네가 신문사나 경영한다고 친구도 몰라 … 나를 내보려무나. … 네 부자는 얼마나 있겠느냐. 네 집에 ○○이 들어갈 줄 알아라.”하고 노매(怒罵, 아주 거칠게 화를 냄)하였다. 이럴 때 명민(明敏)한 김씨는 묵묵불어(默默不語, 침묵하고 아무 말을 않음)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고말고 다른 친구가 송씨에게 “송 선생이 너무 하외다”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 유광열, "신문독재자송진우론" <三千里> 제4권 9호, 1932, p.16.



<삼천리> 4권9호(1932년 9월호) 표지와 그 속에 수록된 "신문독재자 송진우론"

만약 두 사람의 사이에 계급이나 서열이 존재했다면 어디 가당치나 한 설명인가. 이런 점에서 인촌과 고하는 중앙학교나 동아일보의 소유 관계나 직위 등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특별한 동지 관계다. 그러하기에 백룡 채만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일신양면' '부부 관계'로 비유하였다.

"기미 이후 씨는 다시 김성수 씨와 한 가지로 동아일보를 세우며 일하게 되었다. 김성수 씨의 말이 여러 번 나오니 말이지 양 씨는 일신양면(一身兩面)이다. 무슨 일든지 둘이서 같이 나선다. 그것은 마치 한 쌍의 부부와도 같다. … 이상과 같이 송-김 양씨는 서로 반대되는 두 성격을 잘 종합하여 가지고 오늘날의 사업을 이룬 것이다. 그럼으로 김씨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송씨와 그 사업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송씨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김씨와 및 그 사업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법이다." - 白菱, "동아일보사장 송진우씨 면영", <해성>(1931.3), p.112.



<해성> 1권1호(1931년 3월호) 표지와 그 속에 수록된 "동아일보사장 송진우씨 면영"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하를 '인촌의 아류(亞流, 2인자)'라는 인식은 잘못된 편견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고찰하면 1910년대 중반부터 1920, 30년대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국내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하가 앞에서 실행하면 인촌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형태였다. 전통적인 가정에 비유하면 고하가 아버지 역할이고, 인촌은 어머니 역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연세대학교에서 「일제 하, 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 노선」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덕영(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김성수를 중심에 놓고, 송진우를 '김성수의 자장(磁場) 하에 있는 인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은 앞뒤가 바뀐 인식이다"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왜,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고하를 '인촌의 종속변수'로 보지 않고 '상수(常數)'로 보는 것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3.1운동으로부터 1920, 30년대의 민족운동을 거쳐 해방 후 건국운동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을 종래의 친일시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고하 송진우는 일제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협력한 친일 논설과 인터뷰에서조차 참여한 적이 없다.

그것이 해방 후 고하가 한민당의 핵심이자 국내 민족주의 세력의 주도 인물로 부각된 이유이다.(이하 계속)